

중학생의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 관계와 관련된 변인 탐색 연구*

김진원(연세대학교 박사과정)
강호수(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채현우(삼봉초등학교 교사)
손다정(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원)
송승익(연세대학교 석사과정)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 관계와 관련된 개인 및 가정, 학교 변인을 종합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중단연구 3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을 통해 2수준 다층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교사와의 관계와 관련된 변인은 성별, 정신건강(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시민의식, 학생이 인식한 교수자중심 수업, 학생이 인식한 학습자중심 수업, 학교만족도, 부모월평균소득, 부모-자녀 신뢰 관계, 남녀공학 여부, 교사가 인식한 학교평균 학습자중심 수업이었다. 둘째, 중학생의 또래 관계와 관련된 변인은 성별, 정신건강(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시민의식, 학생이 인식한 교수자중심 수업, 학교만족도, 부모-자녀 신뢰 관계, 학교평균 SES, 혁신학교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사와의 관계와 또래 관계에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생의 정신건강,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시민의식, 학생이 인식한 교수자중심 수업, 학교만족도, 부모-자녀 신뢰 관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학교 학생들의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시사점으로 시민의식의 함양,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학교만족도 제고를 위한 학교 차원의 노력이 중요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교사와의 관계, 또래 관계, 경기도교육중단연구, 위계적 선형모형

* 본 논문은 제5회 경기도교육중단연구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김진원 외(2018). 중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변인 탐색 연구'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임.

** 교신저자(hskang24@gmail.com)

■ 접수일(2019.02.28), 심사일(2019.03.17), 게재확정일(2019.04.15)

I. 서 론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로 환경에 대한 적응이 중요한 과업으로 대두된다. 특히,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학교적응은 매우 중요한 과업에 해당한다. 학교적응이 순탄치 못하여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학교부적응의 일환인 비행과 일탈 등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고, 심한 경우 학업중단에까지 이르게 된다(이병환, 강대구, 2014). 학교적응이 성인기의 사회 적응 및 직업 성과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Sekar & Lawrence, 2016)을 고려할 때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돕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연구자들은 학교적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구성개념을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의적 적응 등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한 바 있다(문은식, 김충희, 2002; Roeser & Eccles, 1998). 학교적응의 하위 요소 중 학자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된 부분은 관계적인 부분으로 학교 내 대인관계인 교사와의 관계와 또래 관계가 대표적이다(김지혜 외, 2008; 이규미, 2005; 조정아, 2012). 교사와의 관계란 학교라는 사회적 환경을 배경으로 교사와 학생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과정(이의빈, 한창근, 2017)으로, 학생들이 교사와의 관계를 통해 지지를 받음으로 인해 학생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안정감과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김현진, 2017). 이와 더불어, 학교 내 대인관계의 중요한 한 축으로 또래 관계가 존재한다. 또래 관계란 연령과 성숙 수준 및 교육과정이 비슷하여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고 쉽게 상호작용을 하며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김희진, 최장원, 이지현, 2012)를 의미하는데, 또래 관계 역시 학생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유순화, 2007).

이 같은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 관계의 중요성으로 인해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 관계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관계가 특정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는 학생의 내재적 삶의 목표 설정(이의빈, 한창근, 2017)과 주관적 안녕감(배주영 외, 2015) 등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래 관계 또한 다문화시민성(김성식, 2018)과 자아존중감(홍명숙, 이수영, 2017)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 관계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시행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데 반해,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 관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주목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교사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로는 자아관과 학업성취의 영향을 밝힌 이현철, 정시영, 최성보(2015)의 연구가 대표적이며,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로는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의 효과를 밝힌 배민영(2017)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다만, 이 두 연구는 각

각의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밝힌 연구라기보다는 세부적인 요인들에 주목하여 진행된 연구이며, 주로 교사와의 관계와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차원의 변인 가운데 개인 및 가정 변인에 주목하여 진행된 연구라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학교 차원의 지원 및 학교 교육을 통해 학교 내 대인관계인 교사와의 관계와 또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학생의 개인 및 가정 변인뿐만 아니라 학교 관련 변인을 포함한 종합적인 변인 탐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학생의 학교 내 관계성에 주목하여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 관계에 미치는 변인을 탐색한 연구는 이자형(2017)의 연구가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부산 지역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부적응의 하위 영역을 친구부적응, 교사부적응, 수업부적응으로 구분하고, 이에 미치는 개인 및 가정, 학교 관련 영향 요인을 종합적으로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한다. 그러나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다른 시·도 지역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부적응이 증가하는 경향(서정민, 2013)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 관계와 관련된 개인 및 가정, 학교 변인을 종합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경기도 지역은 2014년 기준 전국 단위 학업중단 청소년 60,568명 중 17,587명이 학업중단 청소년으로, 그 비율이 약 29%로 높은 수치에 달한다(이근영 외, 2015). 또 경기도 지역은 혁신학교, 민주시민교육과 같은 특정 교육정책을 교육청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 왔다는 점에 비추어 보건대, 고유한 학교 문화 및 풍토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 관계에 미치는 학교 변인까지 종합적으로 탐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를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경우 학급담임제로부터 교과담임제를 경험하고 학교에 머무는 시간 또한 길어져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과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교부적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서정민, 2013) 등을 반영하여 중학교 3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 관계와 관련된 변인들을 개인 및 가정, 학교 변인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학교 학생들의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 중학생의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 관계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인가?

둘째, 중학생의 교사와의 관계와 관련된 변인은 무엇인가?

셋째, 중학생의 또래 관계와 관련된 변인은 무엇인가?

II. 선행연구 분석

1. 교사와의 관계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란 '학교라는 사회적 환경을 배경으로 교사와 학생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과정'(이의빈, 한창근, 2017), 혹은 '현실인식을 갖는 교사와 학생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행위하는 과정'(김희진 외, 2012)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이라는 의미는 교사가 학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성을 지지하며, 학생은 교사와의 관계를 통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상태를 뜻한다(이의빈, 한창근, 2017). 실제 교사는 학생들을 사회화시키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청소년기 학생의 중요한 인간관계 속의 한 부분으로, 학생이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배주영 외, 2015).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인식은 학생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안정감과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며(김현진, 2017),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는 교사가 청소년의 인성 발달 등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지은림 외, 2003). 특히, 교수(teaching)와 학습(learning)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는 학생의 학업적 측면뿐 아니라 학교생활의 적응을 돕고 타인과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통해 독립적인 사회인으로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 같은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선행연구들에서는 교사와의 관계가 학생들의 다양한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냈다. 예를 들어, 김성식(2018)의 연구에서는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가 학생의 다문화시민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고, 김현진(2017)의 연구에서는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가 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밝혔으며, 배주영 외(2015) 연구에서는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가 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 아니라, 이의빈과 한창근(2017)의 연구에서는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가 학생의 내재적 삶의 목표 설정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상당수 선행연구들은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가 자아존중감(김희진 외, 2012; 이의빈, 한창근, 2017; 홍명숙, 이수영, 2017) 및 학교생활 적응(김희진 외, 2012; 최지은, 신용주, 2003; 홍명숙, 이수영, 2017)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학생과 교사 간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교사와의 관계가 특정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는 상당수 있는 반면에, 교사와의 관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이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교사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는 이현철 외(2015)의 연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시기의 학생이 지각한 교사관계에 영향을 주는 개인 및 가정 요인들을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학생의 자아관과 부모 관계 등이 교사와의 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한편 이자형(2017)은 교사부적응에 미치는 개인 및 가정, 학교 변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성별, 부모자녀관계, 자존감, 진로성숙도, 학교운영 참여 풍토, 학생의 학교만족도, 교수자중심 수업, 학습자중심 수업, 학교평균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교사와의 관계와 관련된 변인임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개인 및 가정 변인에서 여학생일수록 교사부적응이 높았으며, 부모자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자존감과 진로성숙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교사부적응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생의 전반적인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이 교사와의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 프로그램 및 환경에 만족하고, 학교운영 참여가 높은 학교일수록 교사부적응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사의 수업방법 역시 교사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수자중심 수업과 학습자중심 수업 모두에서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인식이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학교 수준 변인들은 대체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학교평균 교사의 학생상담 및 생활지도 업무 비중이 높은 것이 오히려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2. 또래 관계

또래 관계란 연령이나 성장수준이 비슷하여 일상적으로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대상과의 관계(Perry & Bussey, 1984) 혹은 연령과 성숙수준 및 교육과정이 비슷하여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고 쉽게 상호작용을 하며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김희진 외, 2012)를 의미한다. 아동기에 비해 청소년기는 대인관계를 맺는 대상이 증가하고, 또래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또래 관계는 학교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소년에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유순화, 2007; Giordano, 2003).

이 같은 또래 관계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선행연구들에서는 또래 관계가 학생들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냈다. 예를 들어, Wentzel(1991)의 연구에서는 또래 관계가 학업성취와 긍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밝혀냈고, 김성식(2018)의 연구에서는 또래 관계가 다문화시민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주영 외(2015)의 연구에서 또한 학생들이 또래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또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다

수 존재하였다(최지은, 신용주, 2003; 문은식, 김충희, 2002; 홍명숙, 이수영, 2017). 최지은과 신용주(2003)는 긍정적인 또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으며, 문은식과 김충희(2002)는 또래와의 관계가 심리적 안녕을 매개변인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혀냈다. 홍명숙과 이수영(2017)의 연구에서 또한 또래 관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또래와의 관계가 특정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상당수의 연구가 있는 반면에,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보고된 영향 요인도 개인 및 가정 변인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한 연구는 배민영(2017)의 연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또래 애착의 변화양상에 대한 요인 분석을 시행하였는데,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이 초기값과 변화를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 황매향, 최희철, 임효진(2016)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고, 김은경과 김순규(2015)의 연구에서는 성별, 부모 애착이 또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노보람 외(2016)의 연구에서는 성별,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 자아존중감, 부모의 또래 관계 인식 등이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일부 선행연구에서 또래 관계에 미치는 개인 및 가정 변인에 주목한 것과 달리, 이자형(2017)은 개인 및 가정 변인 이외에 학교 변인을 포함시켜 친구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친구부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정 변인에는 자존감, 진로성숙도, 방과후학교 참여여부, 동아리활동 참여빈도, 학교만족도, 부모와의 관계 등이 있었고, 학교 변인으로는 수준별 이동 수업, 학교평균 방과후학교 참여율 등이 존재하였다. 이 가운데 동아리활동 참여빈도가 높을수록 친구부적응이 높았으며, 학교평균 예체능 방과후학교 참여가 또래 관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약하면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에서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 및 가정 변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자형(2017)의 연구에서는 학교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된 변인들을 참고하여, 학생 수준과 학교 수준으로 변인들을 구분하고 이러한 변인들이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 관계와 관련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2014년에 수집된 경기교육종단연구(Gyeonggi Education Panel Study: GEPS)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경기교육종단연구는 경기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인지적·정의적·사회적 발달과 성장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강호수, 김종민, 최보미, 2017). 경기교육종단연구는 학생이 인식한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 관계에 대한 문항과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 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3차년도 자료는 63개 중학교, 3학년 학생 3,784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이 가운데 분석모형에 투입된 변인에 따라 발생하는 결측치를 완전제거(listwise)하여 중학교 63개교, 3학년 학생 3,052명, 교사 657명의 응답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2. 변인 설명

본 연구는 중학생의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 관계와 관련된 개인 및 가정, 학교 변인을 종합적으로 탐색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종속변인으로 교사와의 관계와 또래 관계를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인으로는 선행연구에서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변인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개인 및 가정, 학교 변인을 투입하였다. 먼저 종속변인인 교사와의 관계와 또래 관계는 각각 6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된다. 종속변인 문항에 대한 세부 내용과 신뢰도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종속변인 문항 내용 및 신뢰도

구분	문항 내용	신뢰도
교사와의 관계	선생님들은 나에게 잘해주시려고 노력한다	.935
	선생님들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선생님들은 가까이 대하기가 편하다	
	고민이 있으면 상담하고 싶은 선생님이 있다	
	선생님들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또래 관계	학교 친구들과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923
	나와 함께 놀아줄 학교 친구가 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	
	모듬 활동을 할 때 협조를 잘 하려고 노력한다	
	학교 친구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히 말한다	
학교 친구가 이야기할 때 귀담아 듣는다		

다음으로 교사와의 관계와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은 선행연구에 기반을 두어 개인 및 학교 변인으로 구분하여 학생 개인수준과 학교 수준으로 투입하였다. 우선 개인 변인에는 개인 특성과 가정 특성 변인이 있다. 개인 특성 변인으로는 성별, 정신건강(불안, 우울),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시민의식, 학생이 인식한 교수자중심 수업(국어), 학생이 인식한 학습자중심 수업(국어)¹⁾, 동아리 참여 횟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여부, 학교만족도를 포함하였으며, 가정 특성 변인에는 부모월평균소득(SES), 부모-자녀 신뢰 관계를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학교 변인은 학교 기본 특성 변인과 교사 특성 및 학교풍토 변인으로 구분하였다. 학교 기본 특성 변인으로 학교소재지, 남녀공학 여부, 학교평균 SES, 교원 1인당 학생 수, 혁신학교 여부를 포함하였다. 교사 특성 및 학교풍토 요인에는 교사가 인식한 학교평균 교수자중심 수업, 교사가 인식한 학교평균 학습자중심 수업, 학교평균 교사 현학교만족도, 학교평균 교사 사기 및 열의, 학교평균 개방적 풍토를 포함하였다. 변인에 대한 세부 설명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학생 개인 및 학교 수준 독립변인 설명

구분	독립변인	내용	신뢰도	설문지
1수준(학생 수준)				
	성별	여자=1, 남자=0		학생
개인 특성	정신건강 (불안, 우울)	‘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는 편이다’, ‘나는 모든 일에 걱정이 많은 편이다’,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할 때가 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외로울 때가 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슬프고 울적할 때가 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죽고 싶은 생각들이 때가 있다’ 등 불안과 우울을 반영하는 6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값의 평균	.870	학생
	자아존중감	‘나는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773	학생

1) 국어 교과는 다른 교과의 학습 및 비교과 활동과 범교과적으로 연계되고, 사교육으로 인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교과(이광현, 권용재, 2011)이며, 다양한 수업방법을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교과라는 점에서 교수자중심 수업방법과 학습자중심 수업방법을 국어 교과로 한정하였다.

	<p>한다',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나도 다른 사람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나 자신을 더 존중할 수 있다면 좋겠다(역코딩)',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역코딩)' 등 자아존중감 관련 7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값의 평균</p>		
<p>진로성숙도</p>	<p>'내가 원하는 직업(전공)을 갖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다', '나는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나는 내 또래에 비해서 뚜렷한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직업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역코딩)', '어떤 직업을 가지는가가 미래의 나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힘든 일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선택할 것이다',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다(역코딩)', '내가 관심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내가 잘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등의 진로에 대한 계획성, 직업 태도, 진로에 대한 자기이해를 반영하는 진로성숙도 관련 12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값의 평균</p>	<p>.842</p>	<p>학생</p>
<p>시민의식</p>	<p>'나는 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나는 어려운 친구나 이웃을 도와준 적이 있다', '주변에 어려운 친구나 이웃을 보면 도와주고 싶다', '같은 동네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 '남녀 상관없이 누구나 학생회장이 될 수 있다', '한국에 사는 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아무도 보지 않으면 법(예: 교통질서)을 지킬 필요가 없다(역코딩)',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목격해도 나에게 피해가 안 된다면 모른 채한다(역코딩)', '어른이 되면 선거나 투표에 반드시 참여할 것이다', '좋은 사회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힘들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노약자나 임산부, 장애인이 타면 피곤하더라도 자리를 양보한다', '누가 길을 물으면 바쁘더라도 친절하게 대답한다',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남의 일까지 도와줄 필요는 없다(역코딩)', '내 일이 아니면 대충한</p>	<p>.705</p>	<p>학생</p>

	다(역코딩), '함께 협력해서 일해야 하는 경우에 슬쩍 빠져나온 적이 있다(역코딩)' 등 시민의식 관련 17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값의 평균		
교수자중심 수업	'선생님은 설명을 통하여 교과서의 내용을 전달하신다', '선생님의 설명과 안내가 수업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선생님은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제시하신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신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신다', '선생님은 학생의 대답에 대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신다' 등 교수자중심 수업방법 관련 국어 6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값의 평균	.880	학생
학습자중심 수업	'선생님은 학생들이 정해진 주제에 대하여 서로의 의견을 모아 하나의 결론을 내리도록 안내한다', '선생님은 친구들이 의견을 발표하면, 타당한 근거를 들어 그 의견에 동의하거나 비판하도록 유도한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스스로 수업 목표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학생들은 학습 내용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주고받는다',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한다', '학생들은 소집단을 만들어 학습 과제를 함께 해결한다', '학생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과제를 해결한다', '학생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공동과제를 해결한다' 등 학습자중심 수업방법 관련 국어 9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값의 평균	.948	학생
동아리 참여 횟수	한 달 기준 동아리 활동 참여 정도(활동 안함=1, 1회~2회=2, 3회~4회=3, 5회~8회=4, 9회 이상=5)		학생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여부(참여=1, 미참여=0)		학생
학교만족도	학생들의 학습능력 배양, 특기·적성 계발, 생활 및 진로상담, 교육시설 및 환경, 안전, 급식의 질,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학생 인권 존중 문화 등 학교만족도 관련 8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값의 평균	.919	학생
가정 특성	부모월평균 소득(SES)	월평균 가구소득에 자연로그 취한 값	부모
	부모-자녀 신뢰 관계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 감정을 존중해줍니다',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나를 좋아하십니다',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이	.941 학생

		야기할 때 내 생각을 존중해 주신다',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결정한 것을 믿어주신다',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화가 나 있을 때 나를 이해하려고 하신다', '나는 부모님(또는 보호자)을 믿는다' 등 신뢰로운 부모와의 관계 관련 6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값의 평균		
2수준(학교 수준)				
학교 기본 특성	학교소재지	도시=1, 읍면소재지=0		학교
	남녀공학 여부	남녀공학=1, 단성학교(남중, 여중)=0		학교
	학교평균 SES	학교평균 월평균가구소득에 자연로그 취한 값		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	전체 학생 수를 교원 수로 나눈 값		학교
	혁신학교	혁신학교=1, 혁신학교 아님=0		학교
	학교평균 교수자중심 수업	'나는 설명을 통하여 교과서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나는 설명과 안내가 수업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나는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학생에게 제시한다', '나는 학생들과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나는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다', '나는 학생의 대답에 대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본다' 등 교사가 응답한 교수자중심 수업방법 관련 국어 6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값의 학교별 평균	.583	교사
교사 특성 및 학교 풍토	학교평균 학습자중심 수업	'나는 학생들이 정해진 주제에 대하여 서로의 의견을 모아 결론을 내리도록 안내한다', '나는 학생들이 의견을 발표하면 타당한 근거를 들어 그 의견에 동의하거나 비판하도록 유도한다', '나는 학생들이 스스로 수업 목표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는 학생들이 학습 내용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주고 받도록 유도한다', '나는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도록 도와준다', '나는 학생들이 소집단을 만들어 학습 과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는 학생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나는 학생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공동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등 교사가 응답한 학습자중심 수업방법 관련 국어 9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값의 학교별 평균	.920	교사

학교평균 교사 현학교만족도	학교의 비전 및 중점추진사항, 학교운영 참여, 교수-학습 활동 결과, 새로운 교육활동 시도, 학생과의 관계, 동료교사와의 관계, 교장·교감과의 관계, 교사 전문성 향상 기회 항목에 교사가 응답한 현학교만족도 관련 8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값의 학교별 평균	.930	교사
학교평균 교사 사기 및 열의	‘나는 사기(의욕)가 높다’, ‘나는 열의를 갖고 근무한다’, ‘나는 우리 학교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등 교사가 응답한 교사 사기 및 열의 관련 3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값의 학교별 평균	.851	교사
학교평균 개방적 풍토	‘우리 학교는 교사 개개인의 실수나 시행착오를 학습의 기회로 삼도록 하는 분위기이다’, ‘우리 학교는 교사들이 직위나 경력에 관계없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도록 서로 격려한다’, ‘우리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의 학교경영문제에 대한 비판이 자연스럽다’, ‘우리 학교는 교사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우리 학교에서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를 개선하기 위해 교사들이 능동적으로 노력한다’, ‘우리 학교는 기존의 제도나 관행을 깨는 시도를 한다’,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은 꾸준히 새로운 발상을 한다’, ‘우리 학교에서 새로 시도하는 학교운영방식은 수정을 거치면서 정착된다’ 등 교사가 응답한 학교풍토 관련 8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값의 학교별 평균	.946	교사

3. 분석 모형 및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 관계와 관련된 변인을 개인 및 가정, 학교 변인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s: HLM)을 활용하였다.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이라고도 불리는 HLM은 다층적인 구조를 반영하기 위해 개발된 통계모형으로 다양한 층위의 분석 단위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분석 방법에 해당한다(강상진, 2016). 학생은 학교에 내재되어 있고,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 관계는 학생의 개인 특성과 학생이 내재되어 있는 학교 특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HLM을 이용하였다. 실제 자료처리 및 분석을 위해 SPSS 24.0과 HLM 6.08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량을 파악하였다. 둘째,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교사와

의 관계와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개인 변인 및 학교 변인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2수준 위계적 다층모형을 설정하여 다층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2수준 위계적 다층분석 모형

구분	분석모형	투입한 독립변인
모형 1	기초모형	-
모형 2	연구모형 (모형 1 + 개인 변인)	1) 개인 특성 요인: 성별, 정신건강(불안, 우울),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시민의식, 교수자중심 수업, 학습자중심 수업, 동아리 참여 횟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여부, 학교만족도 2) 가정 요인: 부모월평균소득, 부모-자녀 신뢰 관계
모형 3	연구모형 (모형 2 + 학교 변인)	1) 학교 기본 특성: 학교소재지, 남녀공학 여부, 학교평균 SES, 교원 1인당 학생 수, 혁신학교 여부 2) 교사 특성 및 학교풍토: 학교평균 교수자중심 수업, 학교평균 학습자중심 수업, 학교평균 교사 현학교만족도, 학교평균 교사 사기 및 열의, 학교평균 개방적 풍토

2수준 위계적 다층모형에서 모형 1은 독립변인을 투입하지 않은 기초모형에 해당한다. 모형 1을 통해 종속변인인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 관계에 대한 전체 분산 중 학교 간 차이에 의한 분산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급내상관계수(ICC)를 산출함으로써 중학생의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 관계가 학교마다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모형 1인 기초모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기초모형]

1수준(학생 수준) $Y_{ij} = \beta_{0j} + e_{ij}, e_{ij} \sim N(0, \sigma^2)$

2수준(학교 수준) $\beta_{0j} = \gamma_{00} + u_{0j}, u_{0j} \sim N(0, \tau_{00})$

모형 2와 모형 3은 연구모형에 해당한다. 모형 2는 모형 1에 학생 개인 변인을 투입한 모형이고, 모형 3은 모형 2에 학교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이다. 최종 분석모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연구모형]

1수준(학생 수준)

$$Y_{ij} = \beta_{0j} + \beta_{1j}(\text{성별}) + \beta_{2j}(\text{정신건강}) + \beta_{3j}(\text{자아존중감}) + \beta_{4j}(\text{진로성숙도}) + \beta_{5j}(\text{시민의식}) + \beta_{6j}(\text{교수자중심 수업}) + \beta_{7j}(\text{학습자중심 수업}) + \beta_{8j}(\text{동아리 참여 횟수}) + \beta_{9j}(\text{방과후학교 참여 여부}) + \beta_{10j}(\text{학교만족도}) + \beta_{11j}(\text{부모월평균소득}) + \beta_{12j}(\text{부모-자녀 신뢰 관계}) + e_{ij}, e_{ij} \sim N(0, \sigma^2)$$

2수준(학교 수준)

$$\begin{aligned} \beta_{0j} = & \gamma_{00} + \gamma_{01}(\text{학교소재지}) + \gamma_{02}(\text{남녀공학 여부}) + \gamma_{03}(\text{학교평균 SES}) \\ & + \gamma_{04}(\text{교원 1인당 학생수}) + \gamma_{05}(\text{혁신학교 여부}) + \gamma_{06}(\text{학교평균 교수자중심 수업}) \\ & + \gamma_{07}(\text{학교평균 학습자중심 수업}) + \gamma_{08}(\text{학교평균 교사 현학교만족도}) \\ & + \gamma_{09}(\text{학교평균 교사 사기 및 열의}) + \gamma_{010}(\text{학교평균 개방적 풍토}) + u_{oj}, \\ & u_{oj} \sim N(0, \tau_{00}) \end{aligned}$$

$$\beta_{qj} = \gamma_{q0}, \quad q = 1, 2, \dots, 10$$

β_{0j} 는 절편(교정 평균)값으로 학교마다 학생의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무선효과(random effect)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이외의 변인은 고정효과(fixed effect)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모형에 사용된 변인 모두 전체평균으로 중심화(grand mean centering)하였다.

IV.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다층모형에 투입된 변인들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본 연구의 종속변인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교사와의 관계 평균은 3.52, 또래 관계 평균은 3.95로 중간점수(3)를 기준으로 둘 다 보통보다 높았으며, 또래 관계에 대한 인식이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독립변인을 살펴보면, 학생 개인 및 가정 변인에서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1,551명(50.8%), 여학생이 1,501명(49.2%)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변인 가운데 시민의식이 평균 3.90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인식한 교수자중심 수업이 평균 3.81, 부모-자녀 신뢰 관계가 평균 3.71, 진로성숙도 평균이 3.65, 자아존중감 평균이 3.64, 학생들이 인식한 학습자중심 수업이 평균 3.52, 학생이 인식한 학교만족도가 평균 3.2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학생의 정신건강의 정도를 보여주는 불안 및 우울의 수준은 평균 2.26으로 보통보다 낮았다. 한 달 기준 학생들의 동아리 참여 횟수는 1~2회가 1,742명(57.08%), 3~4회가 561명(18.38%), 5~8회가 124명(4.06%), 9회 이상이 143명(4.69%),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이 482명(15.79%)으로 나타나 과반수의 학생들이 한 달에 1~2회 정도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861명(28.2%)이었으며,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2,191명(71.8%)으

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의 비율이 더 높았다.

학교 변인에서 학교소재지는 도시 54개교(85.7%), 읍·면소재지 9개교(14.3%)로 도시 비율이 높았으며, 남녀공학의 비율은 92.1%로 남녀공학이 58개교, 단성학교가 5개교(7.9%)였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4.72명이었으며, 혁신학교가 21개교(33.3%)이고 비혁신학교는 42개교(66.7%)였다. 교사 특성 및 학교풍토 변인 가운데 학교평균 교사 사기 및 열의가 평균 3.96으로 가장 높았으며, 교사가 인식한 학교평균 교수자중심 수업과 학교평균 개방적 풍토가 평균 3.63으로 가장 낮았다. 교사가 인식한 학교평균 교수자중심 수업은 평균 3.79, 학교평균 교사 현학교만족도는 평균 3.82로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 기술통계 분석 결과

구분	변인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수준(학생 수준)						
<종속변인>						
	교사와의 관계	3052	3.52	0.82	1.00	5.00
	또래 관계	3052	3.95	0.64	1.00	5.00
<독립변인>						
개인 특성 요인	성별(여자)	3052	0.49	0.50	0.00	1.00
	정신건강(불안, 우울)	3052	2.26	0.84	1.00	5.00
	자아존중감	3052	3.64	0.59	1.00	5.00
	진로성숙도	3052	3.65	0.60	1.00	5.00
	시민의식	3052	3.90	0.51	2.00	5.00
	교수자중심 수업(학생)	3052	3.81	0.71	1.00	5.00
	학습자중심 수업(학생)	3052	3.52	0.81	1.00	5.00
	동아리 참여 횟수	3052	2.25	0.93	1.00	5.00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여부	3052	0.28	0.45	0.00	1.00
	학교만족도	3052	3.27	0.74	1.00	5.00
가정 요인	부모월평균소득	3052	6.02	0.56	1.39	8.99
	부모-자녀 신뢰 관계	3052	3.71	0.86	1.00	5.00
2수준(학교 수준)						
학교 기본 특성	학교소재지	63	0.86	0.35	0.00	1.00
	남녀공학 여부	63	0.92	0.27	0.00	1.00
	학교평균 SES	63	6.01	0.24	5.56	6.64
	교원 1인당 학생 수	63	14.72	2.92	6.33	19.81
	혁신학교 여부	63	0.33	0.48	0.00	1.00
교사 특성 및 학교풍토	학교평균 교수자중심 수업(교사)	63	3.79	0.16	3.48	4.22
	학교평균 학습자중심 수업(교사)	63	3.63	0.28	2.97	4.14
	학교평균 교사 현학교만족도	63	3.82	0.31	3.21	4.65
	학교평균 교사 사기 및 열의	63	3.96	0.25	3.36	4.37
	학교평균 개방적 풍토	63	3.63	0.42	2.65	4.56

2. 다층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학생들의 교사와의 관계와 또래 관계와 관련된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와의 관계와 또래 관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다층분석을 시행하였다.

가. 교사와의 관계와 관련된 변인

중학생의 교사와의 관계와 관련된 변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기초모형인 모형 1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급내상관계수(ICC)는 약 2.17%로 나타나 전체 분산 중 학교 간 차이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Kreft, De Leeuw, & Aiken(1998)이 ICC 값이 0.02 정도라도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는 집단변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사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다층분석을 이용하여 종합적으로 탐색하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모형 2를 통해 중학생의 교사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정 변인을 살펴본 결과, 성별($\beta=0.0479$, $p<0.05$), 정신건강(불안, 우울)($\beta=-0.0612$, $p<0.001$), 자아존중감($\beta=0.1628$, $p<0.001$), 진로성숙도($\beta=0.1357$, $p<0.001$), 시민의식($\beta=0.1342$, $p<0.001$), 학생이 인식한 교수자중심 수업($\beta=0.0579$, $p<0.01$), 학생이 인식한 학습자중심 수업($\beta=0.1135$, $p<0.001$), 학교만족도($\beta=0.3705$, $p<0.001$), 부모-자녀 신뢰 관계($\beta=0.1153$, $p<0.001$)가 도출되었다. 즉, 여학생일수록, 우울과 불안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시민의식이 높을수록, 학생이 교수자중심 수업과 학습자중심 수업방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학교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부모-자녀 신뢰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을수록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이자형(2017)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학생의 정서적 안정감과 학교에 대한 만족감, 교사의 수업방법에 대한 긍정적 인식, 부모와의 신뢰로운 관계 형성이 교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자형(2017)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인 경우 교사부적응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는 여학생일수록 교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다뤄지지 않은 변인이지만, 시민의식이 교사와의 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교사와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변인을 투입한 모형 3에 따르면, 교사와의 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정 변인은 모형 2와 대부분 동일하나, 추가적으로 부모 월평균소득($\beta=0.0529, p<0.05$)이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편 중학생의 교사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변인은 남녀공학 여부($\beta=0.1339, p<0.05$)와 교사가 인식한 학교평균 학습자중심 수업($\beta=-0.1423, p<0.05$)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공학일수록, 학습자중심 수업방법에 대한 교사의 긍정적 인식이 낮을수록 학생의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교사와의 관계 다층분석 결과

변인	모형 1 (기초모형)		모형 2 (모형 1+개인 변인)		모형 3 (모형 2+학교 변인)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고정효과					
절편(교정 평균)	3.5211***	0.0213	3.5198***	0.0148	3.5175***	0.0140
1수준(학생 수준)						
성별(여자)			0.0479*	0.0245	0.0490*	0.0245
정신건강(불안, 우울)			-0.0612***	0.0149	-0.0629***	0.0150
자아존중감			0.1628***	0.0226	0.1632***	0.0226
진로성숙도			0.1357***	0.0219	0.1383***	0.0219
시민의식			0.1342***	0.0275	0.1367***	0.0275
교수자중심 수업(학생)			0.0579**	0.0224	0.0546*	0.0225
학습자중심 수업(학생)			0.1135***	0.0200	0.1176***	0.0201
동아리 참여 횟수			0.0223	0.0127	0.0225	0.0127
방과후학교 참여여부			0.0212	0.0267	0.0162	0.0270
학교만족도			0.3705***	0.0181	0.3751***	0.0182
부모월평균소득			0.0395	0.0209	0.0529*	0.0220
부모-자녀 신뢰 관계			0.1153***	0.0152	0.1129***	0.0152
2수준(학교 수준)						
학교소제지					0.0022	0.0473
남녀공학 여부					0.1339*	0.0578
학교평균 SES					-0.1361	0.0734
교원1인당 학생 수					-0.0001	0.0071
혁신학교 여부					-0.0338	0.0457
학교평균 교수자중심 수업(교사)					0.0556	0.1070
학교평균 학습자중심 수업(교사)					-0.1423*	0.0687
학교평균 교사 현학교만족도					0.0909	0.1233
학교평균 교사 사기 및 열의					-0.0317	0.0991
학교평균 개방적 풍토					-0.0311	0.0752

무선효과			
학생 수준(학생 간 분산)	0.659430	0.392390	0.392320
학교 수준(학교 간 분산)	0.014630	0.005530	0.003790
전체	0.674060	0.397920	0.396110
급내상관계수(ICC)	0.021704	0.013897	0.009568
누적된 설명분산(R ²)			
학생 수준		0.404956	0.4050619
학교 수준		0.622010	0.7409433
전체		0.409667	0.4123520

*p<.05, **p<.01, ***p<.001

나. 또래 관계와 관련된 변인

또래 관계와 관련된 변인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기초모형 분석 결과를 보면, 학교 수준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내상관계수(ICC)는 약 0.0361로 나타나 전체 분산 중 약 3.61%가 학교 간 차이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교사와의 관계 ICC인 2.17%보다는 높은 수치이지만, 또래 관계 또한 여전히 학교 간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표 6> 참조).

다음으로 모형 2로부터 도출된 중학생의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정 변인은 정신건강(불안, 우울)($\beta=-0.0738$, $p<0.001$), 자아존중감($\beta=0.2239$, $p<0.001$), 진로성숙도($\beta=0.1010$, $p<0.001$), 시민의식($\beta=0.2624$, $p<0.001$), 학생이 인식한 교수자중심 수업($\beta=0.0988$, $p<0.00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여부($\beta=-0.0533$, $p<0.05$), 학교만족도($\beta=0.1113$, $p<0.001$), 부모의 월평균소득($\beta=0.0378$, $p<0.05$), 부모-자녀 신뢰 관계($\beta=0.0534$, $p<0.001$)로 나타났다. 즉, 학생의 우울, 불안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시민의식이 높을수록, 교수자중심 수업이 잘 이루어진다고 인식할수록,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수록, 학교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와의 신뢰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을수록 또래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정신건강, 가정 환경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성숙도 수준, 질 좋은 수업, 학교만족도가 또래 관계를 높이는 데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준다. 또한, 앞서 교사와의 관계에서 도출된 결과와 마찬가지로 시민의식은 또래 관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학교 변인을 투입한 모형 3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생 개인 변인의 경우 모형 2와 대부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모형 2와 달리, 성별($\beta=-0.0404$, $p<0.05$)이 또래 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모월평균소득과 방

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여부는 또래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성별의 경우, 여학생일수록 교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했던 것과 달리, 또래 관계에 있어서는 남학생일수록 또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 변인 중 학교평균 SES($\beta=0.1380, p<0.05$)와 혁신학교($\beta=0.0847, p<0.05$)는 또래 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학교평균 SES가 높을수록, 혁신학교일수록 또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6> 또래 관계 다층분석 결과

변인	모형 1 (기초모형)		모형 2 (모형 1+ 개인 변인)		모형 3 (모형 2+학교 변인)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고정효과						
절편(교정 평균)	3.9511***	0.0193	3.9535***	0.0129	3.9503***	0.0122
1수준(학생 수준)						
성별(여자)			-0.0381	0.0199	-0.0404*	0.0199
정신건강(불안, 우울)			-0.0738***	0.0121	-0.0728***	0.0121
자아존중감			0.2239***	0.0183	0.2218***	0.0183
진로성숙도			0.1010***	0.0177	0.0994***	0.0177
시민의식			0.2624***	0.0222	0.2584***	0.0222
교수자중심 수업(학생)			0.0988***	0.0182	0.0970***	0.0183
학습자중심 수업(학생)			0.0189	0.0162	0.0199	0.0163
동아리 참여 횟수			0.0120	0.0103	0.0126	0.0103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여부			-0.0533*	0.0218	-0.0425	0.0220
학교만족도			0.1113***	0.0147	0.1141***	0.0148
부모월평균소득			0.0378*	0.0170	0.0231	0.0178
부모-자녀 신뢰 관계			0.0534***	0.0123	0.0547***	0.0123
2수준(학교 수준)						
학교소재지					0.0394	0.0412
남녀공학 여부					-0.0058	0.0504
학교평균 SES					0.1380*	0.0636
교원1인당 학생 수					0.0118	0.0061
혁신학교 여부					0.0847*	0.0397
학교평균 교수자중심 수업(교사)					0.0243	0.0931
학교평균 학습자중심 수업(교사)					-0.0742	0.0601
학교평균 교사 현학교만족도					-0.0719	0.1076
학교평균 교사 사기 및 열의					0.1165	0.0861
학교평균 개방적 풍토					-0.0161	0.0656

무선효과			
학생 수준(학생 간 분산)	0.399560	0.256440	0.256380
학교 수준(학교 간 분산)	0.014980	0.005030	0.003750
전체	0.414540	0.261470	0.260130
급내상관계수(ICC)			
	0.036136	0.019237	0.014416
누적된 설명분산(R ²)			
학생 수준		0.358194	0.358344
학교 수준		0.664219	0.749666
전체		0.369253	0.372485

*p<.05, **p<.01, ***p<.0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경기도 중학생들의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 관계와 관련된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에 비추어 결론과 논의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교사와의 관계와 또래 관계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변인은 학생의 정신 건강,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시민의식, 학생이 인식한 교수자중심 수업, 학교만족도, 부모-자녀 신뢰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자형(2017)의 연구 결과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도 그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투입한 변수인 학생의 시민의식이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 관계 또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는 보고된 바 없는 결과로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 관계가 학생 개인의 시민의식과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진숙경 외(2016)는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생활 전반은 물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실천한다면 학교생활에서 긍정적 인간관계의 경험을 쌓는 것은 물론, 성인이 되어 사회 적응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학생들의 시민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와의 관계와 또래 관계에 공통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개인 변인 가운데 학교 차원의 노력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 변인인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학교만족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아존중감은 학생의 정서적·인지적 발달을 위해 중요하지만 이를 단기간에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과제 수행 과정에서 느끼는 성공 경험 등과 같이 교실에서부터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통하여 교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래 관계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 진로성숙도가 높은 학생들이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 관계 또한 높게 인식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학생들의 진로성숙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최근 중학교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흥미와 관심사, 진로에 대해 탐색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성숙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심재희, 오정아, 조오숙, 2017; 주휘정, 김민석, 2018). 따라서 자유학기제를 통한 다양한 진로·적성검사를 통한 객관적인 자기이해와 아울러 긍정적인 직업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노력과 함께 전반적으로 중학교 학생들의 학교만족도를 제고시킴으로써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수자중심 수업, 학습자중심 수업에 대한 학생의 긍정적인 인식은 교사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교수자중심 수업에 대한 학생의 긍정적인 인식은 또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학습자중심 수업만이 관계적 측면을 강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교수자에 의해 잘 설계된 교수자중심 수업 또한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 관계를 높이는 것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무길(2011)은 좋은 수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습공동체를 이끄는 교사의 지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손승남(2006)은 한 가지 특정 방법으로 좋은 수업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수업 목적과 내용, 학생들의 성향, 수업 분위기 등에 따라 수업방법은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 특정 교수 방법의 적용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교육과정의 필요에 따라 수업방법을 적절히 선택하고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수자의 역할과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소수의 학교 변인만이 교사와의 관계와 또래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와의 관계와 또래 관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학교 변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소수의 학교 변인 가운데 주목할 점은 혁신학교가 또래 관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이는 혁신학교가 학생의 요구와 필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학생들 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여(박세진, 안영은, 2018) 또래 관계를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남녀공학이 교사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해숙, 유진은, 김미윤(2009)에 따르면 남녀공학 교육은 일반 사회와 유사한 환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성인이 된 이후 삶에 유리한 점이 존재하며, 자아존중감뿐 아니라 교육포부와 같은 정서적 측면과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추론해 볼 때, 남녀공학이 지니는 장점이 실제 교사와의 관계와도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녀공학이 교사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단성학교와는 다른 남녀공학의 문화 및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누적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중학생들의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 관계와 관련된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탐색함으로써 학교 차원의 노력을 통해 학교에서 중요한 관계인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와 또래 관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학생의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와의 관계가 학생의 개인 특성과 학생이 내재되어 있는 학교 특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반영하여 다양한 수준의 변인들을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강상진, 2016) 위계적 선형모형을 활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 주제와 유사한 최근 수행된 이자형(2017)의 연구에서 활용된 다양한 개인 및 가정, 학교 변인들을 참고하여 자료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투입된 학생, 가정, 학교 수준의 독립변인들이 과연 순수하게 종속 변인인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 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숙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투입한 독립변인 중 자아존중감 변인의 경우,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와의 관계의 긍정적 결과로 보고되었기 때문이다(배민영, 2017; 이현철 외, 2015). 이는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위계적 선형모형의 경우,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를 인과관계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구조 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변인들 간 구조 및 경로를 구체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 밖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횡단자료라는 점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요청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 학습자 중심 수업의 경우, 학생이 인식하는 효과와 학교평균 교사가 인식하는 효과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학습자중심 수업방법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정확한 해석과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학습자중심 수업 효과에 대한 연구가 누적되고, 학습자중심 수업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학생의 인식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면밀히 분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상진. (2016). **다층모형**. 서울: 학지사.
- 강호수, 김종민, 최보미. (2017). 경기중단연구 5차년도 기초분석 보고서. (기술보고 2017-04). 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 김무길. (2011). 좋은 수업의 조건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듀이의 성장 개념을 중심으로. **교육철학연구**, 33(3), 25-47.
- 김성식. (2018). 초등학생의 다문화 시민성에 대한 학교 경험 변인의 효과 분석. **한국초등교육**, 29(1), 1-15.
- 김은경, 김순규. (2015). 선형모형을 적용한 청소년기 애착의 변화양상에 관한 중단연구. **학교사회복지**, 32, 357-384.
- 김지혜, 김정남, 남정현, 천성문. (2008). 고등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논단**, 7(1), 39-56.
- 김현진. (2017).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 및 교사와의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장기적 매개효과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0), 30-40.
- 김희진, 최장원, 이지현. (2012). 사회, 문화, 융합 영역;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학교생활 적응-자존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 9(1), 273-298.
- 노보람, 박세롬, 이순형, 박혜준. (2016). 청소년의 또래애착 발달 궤적과 예측요인: 성별에 따른 다집단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7(1), 149-177.
- 문은식, 김충희. (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16(2), 219-241.
- 박세진, 안영은. (2018). 혁신학교가 중학생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혁신학교의 조직문화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8(2), 57-86.
- 배민영. (2017).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 변화 양상 및 예측요인. **아동교육**, 26(2), 207-223.
- 배주영, 도현심, 이선희, 신정희. (2015).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또래와의 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가 학령 후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6(6), 59-83.
- 서정민. (2013). 부모감독이 학교부적응과 청소년 비행경로에 미치는 매개효과: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용. **인문사회과학연구**, 38, 139-169.
- 손승남. (2006). 좋은 수업의 조건 : 교수론적 관점들. **교육사상연구**, 20, 115-134.
- 심재희, 오정아, 조오숙. (2017). 중학생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과 진로성숙도 향상 효과. **한국청소년상담학회지**, 2(4), 67-92.
- 유순화. (2007).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에 관한 학생들의 기대와 지각. **초등교육**

- 연구, 20(1), 355-375.
- 이광현, 권용재. (2011). 사교육비와 사교육시간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분위회귀분석을 이용한 접근. **교육재정경제연구**, 20(3), 99-133.
- 이규미. (2005).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7(2), 383-398.
- 이근영, 배진형, 이지현, 송미향, 서성식. (2015). 경기도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정책연구 2015-03). 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 이병환, 강대구. (2014).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부적응 행동 요인 분석. **교육문화연구**, 20(3), 125-148.
- 이의빈, 한창근. (2017). 청소년의 교사와의 관계가 내재적 삶의 목표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59), 87-114.
- 이자형. (2017). 중학생의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학교 특성 분석 - 부산 지역 중학교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5(5), 245-274.
- 이현철, 정시영, 최성보. (2015). 초·중학생의 교사관계 인식의 종단적 변화 양상과 예측 요인. **교육문화연구**, 21(3), 57-82.
- 정해숙, 유진은, 김미윤. (2009). 남녀공학 중등학교에서의 성별 교육실태와 향후과제. (2009 연구보고서-11).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정아. (2012). 청소년의 학교적응 잠재유형 분류와 생태체계적 영향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3(1), 277-309.
- 주휘정, 김민석. (2018). 자유학기제 참여 학생의 발달 궤적과 영향 요인 분석: 진로체험의 참여 횟수와 만족도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6(2), 91-113.
- 지은림, 백순근, 채선희, 설현수. (2003). 교사-학생 관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평가연구**, 16(2), 25-42.
- 진숙경, 김성기, 김수현, 이원희, 조정민. (2016).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연계 방안. (정책연구 2016-08). 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 최지은, 신용주. (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199-210.
- 홍명숙, 이수영. (2017).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교사와의 관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경영연구**, 4(1), 183-211.
- 황매향, 최희철, 임효진. (2016). 청소년기의 또래애착, 자존감, 삶의 만족 사이의 종단적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7(3), 195-220.
- Giordano, P. C. (2003).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Annual Review of Sociology*, 29, 257-281.
- Kreft, I. G., De Leeuw, J., & Aiken, L. S. (1995). The effect of different forms of centering in hierarchical linear model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0(1),

1-21.

- Perry, D. G., & Bussey, K. (1984). *Social Development*. NJ: Prentice-Hall.
- Roeser, R. W., & Eccles, J. S. (1998). Adolescents' perceptions of middle school: Relation to longitudinal changes in academic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8*(1), 123-158.
- Sekar, J. M. A., & Lawrence, A. A. (2016). Emotional, social, educational adjustment of higher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relation to academic achievement. *i-manager's Journal on Educational Psychology, 10*(1), 29-35.
- Wentzel, K. R. (1991). Relations between Social Compet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2*(5), 1066-1078.

ABSTRACT

A Study of Variables Affecting Middle School Students' Relationships with Teachers and Peers

Kim, Jin Won(PhD. student, Yonsei University)

Kang, Ho Soo(Research Fellow, Gyeonggi Institute of Education)

Chea, Hyeon Woo(Teacher, Sambong Elementary School)

Sohn, Dajung(Researcher, Gyeonggi Institute of Education)

Song, Seung Ik(Master's student,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middle school students' relationships with teachers and peers at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level comprehensively. This study employed a two-level hierarchical linear model with 3rd year data from Gyeonggi Education Panel Study(GEPS). The results indicate that (1) gender, mental health(anxiety, depression), self-esteem, career maturity, citizenship, students' perception of teacher-centered instruction, students' school satisfaction, SES, trust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co-education, teachers' perception of teacher-centered instruction were associated with middle school students' relationships with teachers (2) gender, mental health(anxiety, depression), self-esteem, career maturity, citizenship, students' perception of teacher-centered instruction, students' school satisfaction, trust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school average SES, Hyukshin school had an effect on middle school students' relationships with peers (3) students' mental health, self-esteem, career maturity, citizenship, students' perception of teacher-centered instruction, students' school satisfaction, trust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had a positive impact on middle school students' relationships with teachers and peers equally. Based on these findings, we provide suggestions to improve middle school students' relationships with teachers and peers.

[Key words] Teacher-student Relationship, Peer Relationship, GEPS, HLM